

유성룡의 《징비록》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유성룡의 헌신적 노력

“조선왕조 최악의 군주는 누구니까?” 강의실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다. 가장 훌륭한 군주로는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와 대조되는 임금은 누구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병자호란 때의 인조(仁祖)를 거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말의 고종(高宗)을 얘기하기도 한다.

글_박현모

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선조(宣祖)를 말하곤 한다.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것도 수치스럽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원통하지만, ‘기대’와 ‘기회’를 저버리고 온 나라를 도탄(塗炭)에 빠뜨린 것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젊은 임금 선조에게 걸었던 신민들의 기대

우선, 선조가 즉위했을 때, 병약하고 무기력했던 두 임금(인종과 명종)의 뒤를 이어 “선비들과 말이 통하는” 젊은 임금에게 신민들이 거는 기대가 어땠었던가. 새 국왕을 “조선의 요순”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욕망은 물론이거니와, 권력(權柄)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퇴계까지도 선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옥좌에 앉은 선조는 차츰 마음의 창을 닫기 시작했다.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상반된 처방을 내놓는 신료들의 ‘당파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끝없이 왕을 가르치려 드는 유학자들의 불손함도 여간 고역스럽지가 않았다. 선조가 유교 지식인들의 장황한 ‘훈왕적(訓王的) 언설’을 막아내는 방법은 한 가지였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말을 쏟아내게 하되, 일체의 답변을 주지 않고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하는 일, 그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그로 하여금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은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입을 닫고 돌아가곤 했다.

유성룡의 평양고수론을 물리친 선조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을 보면, 선조는 임진왜란 전후에 몇 차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첫째, 선조는 전쟁 발발 전에 유성룡으로부터 당시 명망 높던 장수 이일(李鎰)을 경

상 우병사로 보내라는 건의를 받았다. “변고가 생기면 결국 이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왕 보내려면 하루라도 일찍 보내 예비케”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고” “명장(名將)은 마땅히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따라 국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겼다. (전쟁 발발 후 이일은 준비 안 된 상태로 경상도 상주로 내려갔다가 참패했다.)

둘째, 유성룡은 선조에게 방어체제 개혁을 제안했다. 조선의 현실에 안 맞는 ‘제승방략(制勝方略)’ 대신 ‘진관의 법(鑣管之法)’을 복구시키자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진관지법’은 평소 지역별 군사훈련을 받은 지역단위 군사들이 전시에 현지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싸우게 함으로써 유연하게 적을 교란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을묘왜변(명종10, 1555년) 이후 시행된 ‘제승방략’은 적의 침입 경보가 내려지면 원군의 군사들이 한 군데 모여,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어체제인데, “장수 없는 군사들이 먼저 들 가운데 모여 천리 밖에서 장수 오기를 기다리다, 장수가 제 때에 오지 않고 적군의 선봉이 먼저 닥치면 놀라고 두려워해” 반드시 패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상주전투에서 발생했다. (유성룡의 이 말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팔레(J. Palais)가 지적한 것처럼, 사후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성룡이 부각시킨 ‘테제’ 일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조가 받아들이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유성룡의 제안은 평양고수론이었다. 사실 선조가 서울을 떠난 것과 평양을 버린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 부산진이 무너진(1592. 4. 12) 15일 만에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申聃)이 소서행장에게 패사(敗死)하고(27일), “적군이 오늘 내일 사이에 도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급보를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었다. (실제로 선조 일행이 서울을 떠난 이틀 만에 소서행장과 가등청정이 한강을 건너 도성에 들어왔다.)

그러나 평양의 상황은 달랐다. 당시 평양성은 10만 명의 군대가 두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4만 섬의 군량이 비축한 막강한 '병마도시'였다. 무엇보다 다른 것은 평양 민심이였다. 선조 일행이 경복궁을 떠나던 날 장수들은 달아나면서 "이 전쟁은 사람이 빚어낸 것(人災)"이라고 말했고, 백성들도 "이 제야 학정에 시달린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하지만 평양의 군민들은 어가가 평양에 머무는 사이(1592. 5. 3~11) "산골 속에 숨어있던 늑은이, 어린이와 남녀 자제들을 불러 모으고 찾아내 성에 들어왔다." 유성룡도 이 때문에 "오늘날의 사세는 먼것번 서울에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서울은 군사와 백성이 모두 무너져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지만 이 성은 다르다"며 평양 고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선조는 왕비와 왕자들을 함경도 쪽으로 보내 (왜적을 유인케 하는 한편), 자신은 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의주로 피신했다.

임진왜란을 극복한 재상, 유성룡

물론 유성룡의 《징비록》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것이며 승리한 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성룡의 공적이 있다면 그것은 군량미의 조달이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임진왜란은 사실상 식량전쟁이었다. 적침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국왕조차도 먹을 것이 없었다. 전쟁의 장기화되자 굶주린 백성들은 "아이를 서로 바꾸어 먹

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재상 유성룡에게 맡겨진 중대 임무는 군량 조달이었다. 조정의 애초 계획은 3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온 명나라 군대에게 세 군데(양책·용천·안주)서 식량을 조달해 평양까지 도달케 하는 것이었다(선조실록 25/7/6). 그러나 4만 섬의 군량미가 비축되어 있던 평양성이 일찍 함락되고, 그 위 정주성에는 곡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유성룡은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명나라 장수 양병총이 "군량과 마초가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회군하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당시 "2천 명의 군사를 먹일 수도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선조실록 25/6/16) 유성룡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먼저 그는 정주 인근 창고의 곡식을 조사해 한 곳에 집결시켰다. 다음으로, 전라도와 충청도 아산의 곡식을 해로로 운반하게 했다. 그리고 운송책임자를 엄선해 안전하게 곡식을 운반하게 했다. 공명첩과 면역첩을 발급해 자발적으로 곡식을 내놓도록 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순신의 서해안 운송로가 장악과 함께 식량전쟁을 위한 유성룡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

박현모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연구실장이다. 저서로는 《정치가 정조》 《세종의 수성(守城) 리더십》 등이 있다.

《징비록》
유성룡 지음 | 이재호 옮김 | 역사의아침 | 416쪽 | 값 17,000원

